

동성애자인권연대

Tel 02-238-0609

Fax 02-253-2179

(화-토: 오후 4-9시)

# Dyke4

인권 자료실		
등		
	All	3

발행인 나선우

편집인 송초아

발행일 1998년 12월 1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7호 110-600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신문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발행 격주간 신문 「다이크」

## 즐겁고 행복한 동성애자들의 단체

#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성애자의 인권과 친목을 위한 단체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타 단체와의 연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동성애자 인권단체를 비롯하여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희망나눔터 등의 인권단체와 학생단체들과의 계속된 연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다이크지 16면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 기관지 다이크지가 새롭게 16면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활동보고와 칼럼, 기획기사 등의 보도에 충실하면서 연재소설과 가벼운 읽을거리를 게재하였습니다.

### 이번 호의 기사

####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병?! · 3

동성애자인권운동 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 현실유지의 진보성 · 6/7

구성애 신드롬에 대하여

#### 음반평, 서평 · 8/9

#### 소설 '悲歌' 박타령시리즈 연재 · 10-13

다이크지, 기존의 딱딱하다는 느낌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 황색페이지 신설

### 동인련, 일일호프 개최

동인련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힘을 모으고, 아울러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이들과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12월 12일(土)에 일일호프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장소는 동인련 회원 권영준씨가 운영하는 5호선 장한평역의 '예우' 카페이며, 권씨는 동인련이 앞으로도 이 카페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일일호프에서 동인련은 맥주를 2,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당 행사는 다양한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관계기사 2/5면에 계속→

### 에이즈 감염인과 연대다짐

동인련은 에이즈 감염인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에이즈 감염인 쉼터인 희망나눔터 회원들과 함께 11월 15일 수라산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관련기사 2면 계속→

■ 다이크는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입니다. 다이크에 참여를 원하고 싶은 분은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나눔터와 가을소풍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들과 에이즈 감염인의 쉼터인 희망나눔터 회원들이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11월 15일 수락산으로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사업에 즈음한 이번 소풍은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인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퀴어영화제 심포지엄 참가

서울 퀴어영화제 부대행사로 11월 13일 금요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동성애와 미디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버디에서 행사를 주관하였는데, 까리까리, 하이텔, 현대문화연구회, 한국일보, 한동협에서 동성애커뮤니티 내부 및 외부에서 바라본 동성애자 미디어의 문제점 비판 및 전망을 살펴보았다.

동인련은 사무국장과 회원들이 참석하여 다이 크지를 배포하고 내부 및 외부의 비판을 듣고 수용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제까지 개인적이고 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단체와 그 소식지의 특징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의있는 행사였다.

##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원칙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 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원칙은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1.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2.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3. 우리는 성적소수자들 내부에서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 '98 민중대회 참여

동성애자인권연대는 11월 8일, 노동자계급과 연대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 '98 민중대회에 참여하였다. 동인련은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의사를 담은 전단을 배포하고 행사를 함께 하였다.

## 제13차 신입회원 교육

11월 14일, 21일, 28일 세 번에 걸쳐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해부터 출발하여, 동성애원인론, 역사와 억압의 현실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월 실시하는 동인련의 교육은 13회를 맞고 있다.

## 수도권 9개 대학홍보

동인련은 11월 중 동국대, 서울여대 등 9개 대학의 홍보를 마쳤다. 동인련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포스터, 대자보 등을 통해 동인련과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병?!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정민숙씨 대법원 패소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에이즈 감염인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Dyke3호에 개재한 바가 있다. 대책위 구성과 실행에 앞서 이번 동인련의 사업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반론들을 예상하고 그것에 관한 동인련의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쓴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있을 수 있는 반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하겠다. 그것은 첫째, 정민숙씨 패소 사건은 동성애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민숙씨가 동성애자가 아니고 HIV 감염도 동성애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동성애자인권연대가 그 사건을 내세워 에이즈 감염인 인권운동을 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하나의 반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에이즈 감염인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질병으로 보는 편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에서 나온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에이즈가 결코 동성애행위만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며, 성정체성과 관련 없이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일반에게 계속 알리고 설득하여 에이즈와 동성애가 동일시되는 편견을 깨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성애자인권단체가 그 이름을 걸고 에이즈 감염인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의 방향에 초를 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단체가 에이즈 감염인 인권운동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지이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보다 그 폭이 더 넓다. 에이즈는 이성애주의에 편승하여 동성애자 억압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를 업고 성관련직업종

사자의 질병이 되기도 하며, 기독교 세력에 의해 종교적 단죄의 색깔을 띄고 나타나기도 한다. 에이즈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보수세력이 사회질서유지에 반하는 계층을 소외시키는 도구로 널리 이용된 것이다.

따라서 에이즈가 동성애자의 질병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무관성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가 윤리적, 종교적 의미를 띄고 출현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하고, 에이즈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에이즈 감염인 전체의 인권이 보장되고 편견이 사라지는 날, 동성애자도 에이즈에서 해방될 수 있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시키는 편견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동성애자인권단체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편견을 깨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 고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가 결국 호모포비아와 억압의 근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성애 성행위가 아무래도 높은 에이즈 감염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편견에 의해 억압당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동성애자인 것도 사실인데, 동성애와 에이즈의 무관성만을 주장하며 그들의 문제를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명분과 체면을 위한 운동이 돼 버리고 마는 것이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에이즈 감염인 전체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민숙씨가 동성애와 관련 없는 HIV 감염자라 할 지라도 이번 사건은 우리가 정당하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인 인권문제는 그 준비 단계도 미비한 상태이다. 동성애자인권단체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이번 사업에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 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CONCERT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즈음하여 열어온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공연이 10년에 이르기까지는 가수, 배우, 시인 등 수많은 예술인의 참여와 10만명에 이르는 관객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전세계의 공동과제인 인권회복을 위하여, 전인류의 공동목표인 인권실현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인권의 상징인 '양심수'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인권과제 중에서도 지금, 가장 추운 곳에서, 최저의 조건에 놓여있는 사람들,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양심수를 기억하고, 이들을 염려하고, 이들의 자유를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89년 겨울, 첫 공연을 시작해 10년을 맞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올해로 '마지막 공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공연이 양심수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대중과 함께 얘기하고 양심수 문제를 사회여론화하여 전국 33개 교도소에 수감중인 405명(10월 21일 현재) 양심수의 석방을 앞당기는데 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공연은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개근'한 가수 정태춘씨를 비롯하여, 10주년 공연이 있기까지 늘 '노 개런티'로 참여해왔던 수많은 가수들과 시인, 배우들이 함께 합니다. 더 넓어진 연령층, 더욱 다양해진 각 장르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이 공연은, 이들 모두가 자선으로 여는 인권콘서트입니다. 또한 이 공연은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에 어깨가 무거운 이들에게 주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p><b>동인련과 동성애자들께</b></p> <p>우리 양심수, 장애인,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 확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p> <p>민가협은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활동을 지지하며, 이번 행사를 비롯한 민가협의 활동에 동인련 회원들과 동성애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1998년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li> <li>*장소: 동대입구역 장충체육관</li> <li>*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양대 총학생회</li> <li>*후원: 한겨레신문사, 기독교방송</li> <li>*출연: 정태춘, 박은옥, 김중서, 사랑과 평화, 김창완, 전인권, 안치환과 자유, 자우림, 꽃다지, 조국과 청춘, 가극단 금강, 문성근, 원창연, 박노해 등</li> <li>*부대행사: 인권만화전, 양심수 자녀들의 그림전</li> </ul>
---	---

# 끼와 기갈의 향연 동인련 일일호프

## 술 드시러 오세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기죽어있는 못 동성애자들의

끼와 기갈을 살리며

동인련의 百年大計를 도모하고자

일일호프를 계획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어려운 경제시정을 감안하여  
저렴한 가격(맥주 2,000원)으로 판매하오니

12월 12일 카페 '예우'로 오세요.

12월 12일 오후 6-다음날 아침 7시  
카페 예우(장소 15면 참조) / 문의 238-0609 (동인련)

## 구성에 성교육

## 현실유지의 진보성

동인련 출판국장  
송초아

구성의 TV 성교육이 유례없는 시청률  
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도 단순히 남녀의 해부학적 생식기 구조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과정만을 반복하는  
것에 그쳤던 성교육이, TV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타고 새로운 형식으로 전해지자 전  
국이 시끌시끌한 것이다.

음지에 숨어있는 성을 양지로 끌어내자,  
섹스를 밥먹고 옷입고 자는 일과 다를 바  
없는 일상으로 노출시키자는 신선한 주장이  
구성이라는 인물 특유의 걸쭉한 입담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섹스의  
방식에 대해 상세히 대화하고, 부부의 성관  
계에 대해 자녀에게 우회 없이 얘기하는 구  
성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은 대중의 흥  
미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억눌려 있던 성  
인식을 시원하게 깨뜨리는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성은 누구에게나 일생동안 큰 호기심과  
관심의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호기심에 답해줄 언어를 만들어 놓  
고 있지 못하다. '아이가 어디서 나오냐'는  
어린이의 흔한 질문 하나도 어떻게 답해  
야 할 지 몰라 무안해하다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성은  
무언가 감춰야 할 것, 불결하고 위험한 것,  
그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교양 없는 행  
동이 되는 은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작고 뚱뚱한, 일반 주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아줌마 성교육 강사가  
TV를 통해 성에 대한 솔직한 언어들을 쏟

아내니 대중은 그 용감하고 새로운 모습에  
매혹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에 성교육이  
제도적 성교육에 비해 신선한 점은 성교육  
수용자의 입장에 맞춘 교육을 한다는 점이  
다. 제도적 성교육은 수용자가 성에 대해 아  
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여 매우 도  
식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을 반복한다.

그것은 성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청소년들을 조금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따분  
한 교과서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구성에는  
청소년들이 이미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에 대한 그들간의 대화  
를 통해서라도, 오히려 그들이 성에 대하여  
성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궁금한  
점들을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일상  
적인 언어로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성에 성교육이 TV로 방영될 수  
있었고, 또 그만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성담론이 진보적이라 해도 결  
국 체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구성의 결론은 사랑, 생명, 쾌락이 늘 함  
께 하는 성을 추구하지는 것이다. 성을 재  
생산과 연결하고, 사랑과 연결하는 것은 진  
정 진보적인 성담론의 입장에서 보았을 대  
기존의 가족주의와 이성애중심주의의 유지  
에 다름 아니고, 근대이후 나타난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유지에 다름 아니다.

현대 심리학, 여성학, 성사회학, 성정치학  
에서 제시하는 성담론들은 우리가 지금껏  
'올바른' 성이라고 여겨왔던 것의 경계를 허  
물고 진정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대안들을 →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성을 결혼과 가족제  
도 내부의 영역으로 제한시키고, 그것을 재  
생산과 사랑이라는 정서와 연결시키는 기존  
의 담론들은 특히 공격받고 있다. 성정치학  
자들은 '성은 없다'는 명제를 들고 나온다.  
성이란 우리가 규정지은 의미 이상도 이하  
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가족, 재생산,  
사랑의 도구이자 목표로서 인식되고 있는  
성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된 의미에  
불과하며 나아가 그들은 성관계는 비단 남  
녀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청소년  
사이에도,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도 가능한  
무규정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여성학에서는  
현재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범  
주 안에 있는 성은 남성이 여성을 남성과  
가사, 양육의 의무에 종속시키기 위해 조작  
된 정의라고 말한다. 심리학에서도 동성애  
나 소년애 같은 성심리들은 결코 비정상적  
이거나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소수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성담론들은 모두  
성의 무규정성에 동의하고, 성은 결혼이나  
가족, 재생산, 사랑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구성의 성교육이 TV 전파를 탈 수 있었  
던 것은 그녀의 주장이 앞서 말한 성담론들처  
럼 근본적 체제와 질서를 뒤엎으려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성억압  
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녀는 오직 현상에서의 성인식 변  
화를 말하고 있다. 그녀의 주장들은 TV가 흘  
려보내는 내용을 감시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  
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또 체제의 질  
서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  
을 선동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문화적 충격을

주지는 않을 정도로 적당히 진보적이다. 그  
러나 구성에의 성교육은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성인식을 조금은 일깨울 수 있을 것  
이다. 유교적인 성인식이 아직도 사회를 움  
직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진보적 성담론이  
생활세계에 침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폐  
쇄적이다. 구성애가 말하듯이 성에 대한 병  
폐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넘어 계속 발  
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변하지 않는 인식으로는 문제를 제대  
로 발견할 수도 없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유아성폭행이 빈번하다는 사실, 전체  
성폭행 비율 중에서 근친상간이 엄청난 비율  
을 차지한다는 사실, 청소년 사이의 무지한  
상태에서의 성행위가 빈번하고 그로 인한 임  
신과 출산이 또한 빈번하다는 사실, 우리나  
라 성폭행 발생비율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성문제는 현실과 인식이 조  
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에서 발생하는 바가  
크다. 신세대들은 성에 대해 구세대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보수적인 성인식  
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다. 그것  
은 오히려 욕구불만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성  
적 일탈을 조장하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해  
결할 방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역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성애의 성교  
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  
적 반항을 일으킬 수 있다. 성교육이라는  
것이 본래 기존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내에서  
성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라  
는 점을 인정한다면 구성애 신드롬을 긍정  
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Bob Dylan "Blowing in the wind"

## 블루진, 통기타, 맥주에 대한 명상

자유기고가 최동룡

작년 이맘때 썸이였을 거다. 영국 태생의 사회학자 Symon Prith가 쓴 '사운드의 힙-록음악의 사회학'(한나래 팝 커처, 1997년)이라는 책을 읽고 무척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내가 놀랐던 것은 정작 책의 내용이 아니라 표지에 실린 저자의 프로필 때문이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다. "...사이먼 프리스는 영국 출신의 진보적 기타리스트 프리먼 프리스의 친형이자, ..."

진보적 기타리스트란 무슨 뜻일까. 기타 하나를 가지고 진보적으로 칠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칠 수도 있단 말인가. 진보적으로 기타를 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 등등. 물론 농담이다.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보적이냐 그렇지 않냐는 음악 내적의 진정성보다 주로 장외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가지 예로, 똑같은 'My way'라는 곡이 있다치자. 이 곡을 만길에 Bob Dylan이 불렀다면 우리는 그의 전투적으로 치열했던 삶을 향해 진심으로 경건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랭크 시나트라에 의해 불려진 이 곡은 우리에게 경건함보다 김치 한 보시기를 먼저 떠올리게 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고집불통 영감의 추잡스러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하긴 그래서 이 곡이 소위 '멋쟁이(?) 우리 아빠'들의 노래방 단골 레파토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밥 딜런의 음악은 진정한 의미의 진보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 놓고 있다. 한 때 베이비 붐 세대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그들에게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반면교사적 이력과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의 급격한 선회(내가 보

기에는 전혀 급격한 선회가 아니다. Juvenile violence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던 일부 골수들은 단지 포크음악에 전기기타를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반동 내지는 변절자 취급을 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의미에서 ('Blowing in the wind'와 'Knocking on heaven's door' 사이의 변화를 변절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사이의 괴리로 인해 그는 팝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은 인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쿤의 프레디 머큐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밥 딜런이 옳았다. 진보란 결국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세이고 어떠한 변화에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과거 진보의 화신이라고도 불렀던 유럽 좌파출신의 정치인들을, 내각의 총수나 국가원수로 당선된 지금 누가 그들을 가리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온갖 눈꼴 사나운 기득권을 남용하는 4.19 세대들에게 4.19가 한국 현대사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더라도 선뜻 진보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힘들 것이다.

한 달전쯤 힐튼 호텔인가 하는 곳에서 '아침 이슬'세대를 위한 통기타 콘서트가 있었다는 것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나 참, 입장료 대신 반드시 청바지를 입고 가야 한다나. 그래. 청바지 입고 맥주 마시면서 포크송을 들으면 다시 젊어지기도 한다는 얘긴가. 기껏해야 돈 몇 푼에 값싼 추억을 보상받는 것이겠지. 그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 블루진, 통기타, 맥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보라는 것, 젊다는 것이 왜 아름답게 회상이 되는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정말 그것은 '바람만이 아는 대답'일까?

(서평)

##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동인련 교육국장 최이연

최근 연구사에서 간행한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는 그 이전 동성애자해방운동을 정치적 인식 위에 서술했던,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나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같은 책들이 다루지 못했던, 현대의 쟁점과 동성애자해방운동의 여러 혼란스런 모순과 실패의 원인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한 좋은 책이라고 보여진다.

그중 이전까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또는 좌파적 동성애자운동이 실패한 여러 요인-개인주의 정치, 분리주의정치, 좌익적 환상-과 더불어 자율주의 환상에 대한 비판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예전의 동성애자운동이 그랬듯이, 자율주의 또는 분리주의의 원리가 동성애자해방전선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레즈비언과 게이들은 이성애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동성애자 억압을 경험하기 때문에 억압에 맞서 싸우는 최상의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동성애자 해방투쟁은 주로 동성애자의 임무이며, 이성애자들은 좋게 보면 쟁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쁘게 보면 적이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을 동성애자조직으로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접근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동성애지역압을 이유로 모든 동성애자들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급진화 되어 싸우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즐기한 억압은 투쟁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주며, 그 결과로 될 수 있으면 이 사회체제에 순응하고자 하는 열망도 조성한다.

때로는 이 운동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발감만 조성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준다. (패배주의적 열치기 식자들 중에 더 많을 것이다)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동성애자 억압을 경험하기 때문에 억압에 맞서 싸울 가장 좋은 방법을 늘안다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게 아니다. 레즈비언과 게이들은 다양한 모든 투쟁 방법을 시도해 본다.

영국 동성애자의 경우 일부는 비교적 진보적인 노동당에 호소하고, 일부는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있는 시민법에 불복종하고, 일부는 심지어 동성애자 평등을 위한 보수당 캠페인까지 지지한다.

전 세계의 모든 동성애자가 같은 생각으로 단결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동성애자 해방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의 제거를 위해 싸우지 않는 이상 동성애자 해방은 동성애자 스스로만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계급에 따른 차이는 이성애자들처럼 동성애자에게도 존재한다.

게이 또는 레즈비언 장관과 사업가들은 현 사회로부터 거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들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성애 억압을 없애기 위해 싸우려하지 않는다.

지배계급 동성애자들은 사회가 지금대로 유지되어야 행복하다. 많은 중간계급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간의 변화만을 좋아할 것이다. 노동계급 레즈비언과 게이는 이 지배계급 및 중간 계급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한계를 뚫고 나가는데 이해관계가 있다.

# 悲歌

설원씨는 분이 기고하신 소설입니다.

설원씨께 감사드리며, 원하시는 글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원

그는 마치 물과 같은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물 같은 사람... 두 손에 담으면 손가락 사이로 새어 흘러나가 자취만을 남긴채 사라져버리는...

그는 비를 사랑했다.

날카로운 화산처럼 온몸을 꿰뚫을 듯 쏟아지는 장대비를...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담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를 처음 본 것은 지리한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이었다.

마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간에 시위라도 하는 듯 미친 듯이 쏟아 붓는 거친 빗줄기에 지쳐 투덜거리며 차를 몰다 어느 한적한 도로에서 그를 만났다.

피투성이가 되어 마구 손을 내흔들어 내가 탄 차를 불러 세우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촬영의 한 장면처럼 내게 이질감으로만 느껴졌다.

빗줄기에 붉은 핏자국은 퇴색되어가고 푸른색으로 변해버린 입술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제발...제발...더 이상은 안돼...형 ..."

뜻모를 단어만을 토해낸채 그는 내 품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자신을 담은 빗줄기에 지쳐서 ... 자신을 배신한 빗소리에 싸여서...

"잠시 자두도록 해. 아직은 중환자실에 있으니 너로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 난 ... 비가 싫어요 ... 잔인하리만치 날카로워서 싫어 ..."

그는 말없이 비내리는 창문 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이미 그를 더럽혔던 붉은 핏빛 물방울은 사라진지 오래였지만 그의 의식은 여전히 그 도로위. 피에 젖은채로였다.

빗줄기에 뒤엉켜 그의 의식을 헤집는 급격한 브레이크 소리. 컷가에 들리는 절망과도 같은 비명소리...

몸을 적시는 뜨거운 피... 비릿한 내음...

내가 왜 그를 끌어안았는지는 나 자신도 모른다.

단지 그가 그 거친 빗줄기에 휩쓸려 내 앞에서 모습을 감출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날 움직이게끔 만든 것이다.

"이제 내겐 형밖에는 없는데 ... 난 ... 난 ... 아직 어린데 ..."

창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거친 빗줄기처럼 그의 하얀 볼에도 그칠 줄 모르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허나, 그의 간절한 소망 따윈 아랑곳없이 그의 단 하나의 핏줄은 그의 곁을 떠났다. 중환자실의 산소마스크 속에서 그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내가 왜 그를 끌어안았는지는 나 자신도 모른다.

단지 그가 그 거친 빗줄기에 휩쓸려 내 앞에서 모습을 감출지도 모른다  
는 불안감이 날 움직이게끔 만든 것이다.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등졌다.

그날도 장대비는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의 슬픔을 나누어 가지려는 듯 서글픈 빗줄기는 끊임줄을 모르고 흐르고 있었다.

"날 사랑해주세요!!! ... 날 ... 날 사랑해줘 제발 ...!!!"

자신의 형을 검은빛 강물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에 떠나보낸 뒤 빗줄기 속에서 울부짖으며 그가 내게 외친 말이였다.

그가 원한 것은 자신의 슬픔에 공조할 수 있는 사람.

허나 ... 내가 그 조건에 합당했던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우연히 맞닥뜨린 사고현장에서 나는 그들 형제를 찾아내었고, 한 명의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되었던 것일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한 명의 환자를 잃은 것 뿐. 형제를 잃은 그의 슬픔까지 공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곳에 내가 있었고 그가 누군가를 원했던 것 ...

비는 그칠 생각이 없었다.

처음 그를 만난 때처럼, 비는 그와 날 적시고 있었다.

다만 그의 몸을 적시던 흐르던 붉은 피만이 사라졌을 뿐.

허나, 그의 가슴에도 나의 가슴속에도 뜨거운 붉은 피가 화살처럼 내리꽂히는 빗줄기에 뒤섞여 있었다.

차가운 빗속에서 ... 그는 나의 입술을, 나의 목 팔을 원했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은 초라한 장례식. 그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그의 형을 삼켜버린 검은빛 차가운 ...

그는 의로운 심장을 가졌다 ...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그 강가의 갈숲에서 나는 그를 안았다.

거센 빗줄기는 그와 나의 몸을 차갑게 식혔고, 두 사람의 뜨거운 심장까지 파고들 듯한 냉기를 쏟아 부었다.

그도 ... 나도 ... 미쳐있었다.

"... 미쳐버릴 것 같아. 더 이상 이 비를 보고 있다간 정말 미칠 거야 ..."

호텔 창밖으로 흘러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칠흙 같은 어둠에 휩싸인 강을 바라보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비는 그에게 좋은 기억이 되질 못하는 것일 뿐이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비수 같은 기억들만을 그에게 안겨줄 뿐 ...

"형을 사랑했어. 세상 그 누구보다 ... 형을 ..."

기나간 침묵 속에 간간이 들려오는 그의 나즈막한 목소리 ...

그것이 빗소리인지 목소리인지 이제는 희미할 뿐이었다.

다만 그는 ... 빗줄기의 암울함과도 같은 목소리로 의미 모를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을 뿐 ...

"비 따위 ... 이젠 좋아하지 않아 ...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 ..."

차가운 유리창에 기대어 의식을 적시는 암울한 빗소리에 휩싸여 그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비가 그치며 예정된 이별 ...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은 항상 첫 만남 때처럼 거칠게 쏟아지는 비가 내릴 때만 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박타령 —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었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기고해 주십시오. 아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이번 글은 김중필씨가 기고한 글입니다.

### 김중필

중학교 1학년, 여름날 오후였다. 토요일 오후 모두들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몇 명의 남자가 몸을 부대끼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계속 몸이 부딪치고, 숨을 할딱이며 잠을 깬다. 땀을 흘리며 화장실에서 꺼내본 꼬추(동인련의 나모씨는 봉건적인 냄새가 난다고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마땅히 '그걸' 부담없이 표현할 말이 없기에 그냥 쓴다)에는 정액이 흘러나와 있었고, 몸이 빠근했다.

처음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꼈던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너무나 재미없는 생활을 하던 나는 놀 수 있는 자리는 모두 끼려고 했다. 친하게 지내는 애의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 친구는 자기 형이 본다면 외국잡지를 꺼내어 내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나는 애씨 무관심한척 그를 바라만 보았다. 내게 웃어보이며 그는 계속 하던 일을 했다. 그애가 사정을 한다음, 그애는 애씨 태연하게 내게 꼬추를 빨아달라했다. 난, 못이기는 척 그애가 원하는대로 해주었다. 그애는 그 일을 몇몇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것 같다.

난 매우 소심했었다. 중학교 때, 몇몇 아이들이 내게 매우 자주 키스를 했지만 나는 더 이상의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물론, 그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했다.

산중에 있다는 기숙사 고등학교 얘기를 들었을 때, 귀가 솔깃했다. 결국 나는 그 학교에 가게 되었고, 매우 많은 일들을 겪게됐다.

1학년 여름방학 대부분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몇 명만이 학교에 남아있었다. 무더운 여름밤 할 일은 없었다. 선생님들은 오랜만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떨렁한 교실에서 우리는 마음껏 웃고 떠들었다. 평소에 얼굴만 알고지내던 반 친구가 내 귀에 대고 밤에 자기 침대로 오라고 말했다. 나는 그냥 알았다고 웃으며 답해주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확실히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단지 무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는 다르리라는 것만을 짐작했을 뿐. 나는 막연한 심정으로 샤워를 하고나서 그 애한테 갔다.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 애의 손길에 이끌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주 친밀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밖에. 신기했다. 그리고 매우 기분이 좋았다. 대부분 애들이 고향에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잠그지 않고 있었는데, 기숙사에 같이 지내던 담임선생님이 우리가 함께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 선생님은 아마도 우리를 보았던 것 같다.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는 것을 나는 등을 돌린채 느꼈다.

그 일이 있고나서 몇 달후, 담임선생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애 대한 여러 소문이 무성했고, 상당 부분이 사실이란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학생의 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그 선생님이 술을 마시고 나서, 그 애를 추행했다고 한다.

2교시였던 것 같다. 선생님이 우리 수업시간 중간에 들어와서, 올해를 마무리짓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두시간을 울었다.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는 내게 그냥 넌 잘할 수 있을거라고만 이야기했다.

다음해, 고2 가을의 축제 때, 눈에 들어오는 후배가 하나 있었다. 나는 매일 그애의 교실에 가서 창밖에서 무심히 쳐다보다, 그애와 눈이

마주치면 불러내어 별다른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기를 두어달, 그 애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가슴이 뛰었는데, 그애는 나를 안고 잠이 들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나는 그애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갔다. 다음날 그 애는 내게 왜 그랬냐고 물었지만 할 말은 없었다.

그날도 그애의 침대에서 자게 되었는데, 우리는 서로 아무말 없이 안고 있었다. 그와 입을 맞추게 되었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같이 잠자리에 들었고, 잠자리에서 좀더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해나갔다. 방을 그 애 혼자 쓰는 건 아니었지만, 침대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는 애씨 태연한척, 우리는 잠들지 않았고, 매일 수업 시간에는 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고, 우리는 다른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시로 만났고, 식사도 같이 하였다. 모두들 우리가 특별한 관계임을 알게되었다. 매일 팔짱을 끼고 같이 외출을 나가고, 내 침대는 매일 비어있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우리가 매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란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였고,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우리는 매우 진지해지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힘없는 우리한테 있지는 않았다.

우리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유무언의 압박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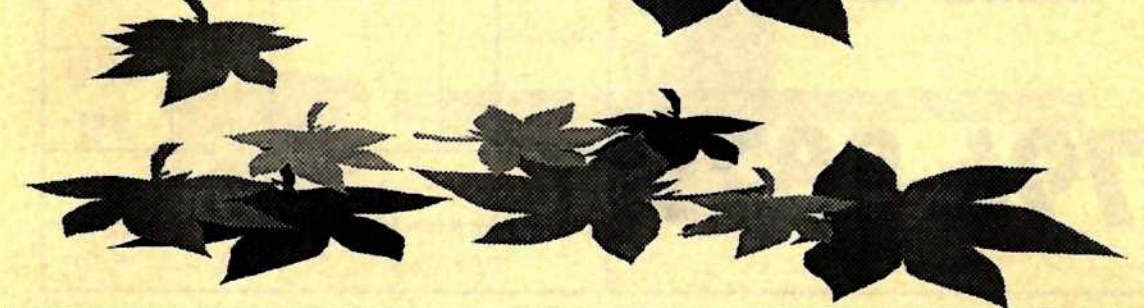
결국 나는 그애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절대 그애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싫다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주어담을 수는 없었다.

그 이후 우리는 매일 싸우게 되었다. 학교밖에서 우리는 정말 다정한 연인이었지만, 학교에서 우리는 은밀히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애가 나를 은밀히 만나지 않으려 할 때, 나는 화를 내었다.

나는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여러달 동안 공부를 핑계로 그를 피하였다. 그애는 나를 이해해주었고, 찾김에 공부를 한 나는 뜻하지 않게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 그후로도 그와 여러번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는 그런 만남들을 매우 즐거워했다. 그러저럭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다.

대학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매일 친구들과 술을 먹었고, 재미있는 일들을 했지만, 정말로 외로웠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다. 그렇게 일년을 보내고, 나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 근교의 한 시골 마을에 가서 반년간의 휴가를 보냈다.

서울로 다시 돌아와 난 고등학교 때 그 애를 찾아갔다. 대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다. 우리는 매우 서먹했다. 나는 새삼스럽지만, 그애가 커밍아웃했다. 그는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날, 우리는 약 1년만에 같이 잠자리를 들었다. 휴학이 끝나고, 난 아직도 그 애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아니라고 말했다.



# 현대문학연구회 첫작품집 「늦은 귀가」 발간

동성애자 문학토론 모임인 현대문학연구회가 회원들의 작품을 발간했습니다.

'다이크문화상' 응모작 중심으로 엮은 첫 작품집에는 송초아 외 6명의 회원들의 시, 소설, 희곡 작품이 실렸습니다. 지난 6월 모임이 시작된 이후 첫 작품집인 이번 책의 이름은 '늦은 귀가'입니다.

아울러 작품집 출간을 계기로 문학회는 모임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늦은 귀가」 동인련 사무실 비치  
5,000원. 200권 한정.

문의전화 | 253-2179

모임지기 | 최 이 연

연락지기 | 김 비

## 현대문학연구회 송년 MT 참가신청중

일시 12월 19-20일 (1박2일)

장소 강화도 (예정)

「현대문학연구회」는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동성애자, 이성애자)에게 열린 모임입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이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바랍니다.

# ZIPPER

# 796-8876

지하1층  
ZI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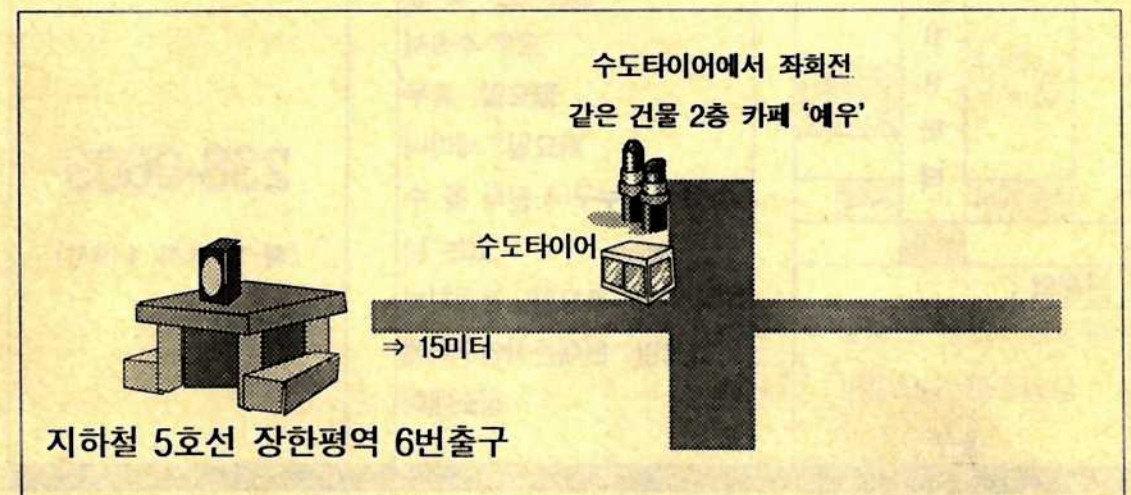
해밀턴  
호텔

카페 '예우'

# 藝雨

비와 예술, 그리고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 248-8030





##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회원이 되십시오

잘 키운  
동성애자  
하나  
열 이성애자  
안 부럽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적소수자들의 단체입니다.  
동인련은 성적소수자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동인련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적소수자와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끼와 기갈의 향연 동인련 일일호프

12월 12일 오후 6시- 다음날 7시. 5면, 15면 참조

사무실 위치

동인련 주간일정

문의전화

사무실	1	
송신빌딩 505호 ↑	0	동경약 국
	0	
대동묘피	미	축협
	터	육교
전철역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상업은행/수도학원		
출구		

상근시간: 화일 오후 4-9시
월요일: 휴무
화요일: 세미나
수목금: 누구나 편히 올 수 있는 날
토요일: 전체회의
일요일: 현대문학연구회에 장소대여

<b>238-0609</b>
(화일 오후 4-9시)